

1920년대 초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양상

— 형태적 분석을 중심으로 —

허 수 *

머리말

1. 『개벽』 초기지면의 근대사상과 인용처
 2. 주요 인물별 소개 양상
 - 1) 니체·루소·제임스
 - 2) 엘렌 케이·러셀·카펜터
 3. ‘중역적 소개’와 ‘소개’의 경제
- 맺음말

머리말

본 논문은 1920~21년 동안 『개벽』 지면에 실린 서구 근대사상에 관한 소개 글을 분석해서, 『개벽』 주도층이 일본을 통해 서구 사상에 접근하고 그것을 소개했던 구체적 양상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개벽』 초기 지면의 서구 근대사상 소개 기사에 주목한 연구는 크게 세

* 동덕여자대학교 연구교수

대표논저 : 2006 「새로운 식민지 연구의 현주소」 『역사문제연구』 16, 역사문제연구소 ; 2005 「일제하 李敎化의 사회사상과 天道敎」,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조론에 영향을 받은 문화운동의 논리구조를 분석하면서 주목한 연구인데, 박찬승과 조규태가 대표적이다.¹⁾ 이들은 1920년대 초 『개벽』의 서구 근대사상 소개 기사를 개조의 시대사조 및 조선인 주도의 문화운동과 관련시켜 적극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특정 인물이나 사상이 한국에 도입된 초기 양상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주목한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주로 철학이나 문학 분야의 연구가 많이 포함되는데, 니체의 한국 수용시를 고찰한 정동호의 연구,²⁾ 윌리엄 제임스와 러셀을 다룬 이병수의 연구,³⁾ 엘렌 케이를 다룬 홍창수의 연구⁴⁾ 등이 있다. 이들은 『개벽』의 근대사상 소개 기사가 개별적인 소개로서는 거의 최조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일본 등을 소개의 경로로 추정하는 점도 비슷하다.

셋째, 일본 등을 통한 서구 근대사상의 국내 수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시도한 허수, 류시현의 연구가 있다. 허수는 『개벽』 초기 서구 사상이 수용되는 중간 통로로 일본의 저서가 활용되었음을 규명했으며,⁵⁾ 류시현은 버트란트 러셀 저작의 번역과 소개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했다.⁶⁾

1)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曹圭泰, 1998 『1920年代 天道敎의 文化運動 研究』,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 정동호, 1997 「니체 저작의 한글 번역 -역사와 실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40

3) 이병수, 2003 「50년대까지 영미철학의 수용과 철학용어의 번역」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 원전 번역과 우리의 근대 - 개화기에서 1950년대까지 -』(제23회 학술발표회, 2003.5.31)

4) 홍창수, 2004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연구」 『상허학보』 제13집

5) 허수, 2005 『일제하 李敎化의 사회사상과 天道敎 - 宗教의 啓蒙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64~68쪽

6) 류시현, 2006(a) 「식민지시기 러셀의 『사회개조의 원리』의 번역과 수용」 『한국사학보』 22; 류시현, 2006(b) 「일제강점기 러셀 저작의 번역과 볼셰비즘 비판」 『역사교육』 제100집

그러나 이상의 세 갈래 연구들은 개별 인물의 사상 소개에 치중하거나, 문화운동 혹은 특정 사상 형성의 전사(前史)로 『개벽』의 근대사상 소개를 취급함으로써, 그 사상의 소개양상에 대한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 및 특징 추출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일본의 저본과 『개벽』 기사를 면밀히 대조해서 인용·소개 양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저본별·인물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개과정에 드러난 전반적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1. 『개벽』 초기지면의 근대사상과 인용처

3·1 민족운동의 대중적 열기와 세계개조·사회개조의 시대사조에 영향을 받아 창간된 『개벽』은 일제 식민지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중적 영향력이 컸던 종합월간지였다. 『개벽』에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사상과 인물이 소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서구 근대사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졌다. 서구의 근대적 사상 혹은 인물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글은 본 논문 말미에 첨부된 <부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략 40여 편에 달했다. 『개벽』 초기지면을 다루는 본 논문의 관심과 관련해서는 이 ‘다양한 사상’ 중 전반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⁷⁾ 전반부의 글 20여 편은 소개 방법에서 첫째, 특정 인물·사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유형,⁸⁾ 둘째, 인물·사상의 특정

7) <부표 1>에서 번호 1~22번에 해당하는 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벽』 창간호(1920.6)부터 제15호(1921.9)까지는 거의 매달 근대사상이 다양하게 소개되다가 약 2년 후인 제37호(1923.7)부터 사회주의 사상 소개 기사가 본격적으로 실렸다.

8) 창간호에 실린 ‘역만능주의의 급선봉 푸리드리히 니체 선생을 소개함’과 같이, 비록 특화된 수식어가 있으나 글 제목이나 내용에서 그 사람의 생애와 사상 전체를 소개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첫째 유형에 속하는 글이 12개로 가장 비중이 높다. <표 1>의 일련번호 1, 2, 6, 7, 9, 11, 12, 16, 17, 18, 20, 21에 해당하는 기사가 여

부분이나 주제를 소개하는 유형,⁹⁾ 셋째, 인물보다는 특정 분야의 사상적 조류를 소개하는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⁰⁾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첫째 유형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¹¹⁾ 12개 글의 면면을 정리하고, 추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글의 출처를 밝혀보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開闢』 초기지면에 실린 서구 근대사상의 전반적인 소개 글¹²⁾

소개 인물	필자	제목	호수	시기	분량	인용처	일련 번호
니체	小春 (金起田)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푸리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1	1920.06	6쪽	16-4	1
	妙香山 (金起田)	新-人生標의 樹立者 푸리드리취 니체 先生을 紹介함	2	1920.07	6쪽	16-4	2
루소	妙香山 (金起田)	近代主義의 第一人 루소先生	5	1920.11	15쪽	16-3	3
제임스	妙香山 (金起田)	近世哲學界의 革命兒 제임스 선생	6	1920.12	8쪽	16-12	4
입센	玄哲 (玄傳運)	近代文藝와 입센	7	1921.01	10쪽	?	5

기에 해당한다.

- 9) 제4호에 실린 『칸트』의 영원평화론을 독(讀)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글은 7개이다. <부표 1>의 연번 3, 5, 10, 13, 14, 15, 19번 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 10) 제3호의 ‘사회주의의 약의(略義)’, 제6호의 ‘문화주의와 인격상 평등’, 제15호의 ‘독일의 예술운동과 표현주의’와 같은 세 편의 글이 여기에 해당한다.
- 11) 첫째 유형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유형이 양적으로 가장 많아서 초기 『개벽』 지면의 근대사상 소개 양상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며, 이 유형에 속하는 기사의 다수가 일본 전거의 추적과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개벽』 후반부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소개될 때에는 사카이 도시히코의 ‘사회주의학설 개요’가 번역 연재되는 등 셋째 유형에 속하는 소개 방식이 많았음에 비추어볼 때, 전반부의 사상 소개를 특징짓는 것은 아무래도 특정 인물의 행적과 사상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첫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2) 허수의 박사논문(허수, 2005 앞의 책, 65쪽)에서 재인용.

엘렌 케이	盧子泳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	8	1921.02	8쪽	8-8	6
	盧子泳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續)	9	1921.03	6쪽	8-8	7
러셀	妙香山人 (金起田)	思想界의 巨星 卍-쥘랜드.러셀氏를 紹介함	11	1921.05	14쪽	8-3 @	8
카펜터	朴思稷	改造界의 一人인 에드워드.카펜타이를 紹介함 *	12	1921.06	15쪽	8-6	9
	朴思稷	人生은 表現이니라, 에드워드.카펜타이를 紹介함 **	13	1921.07	15쪽	8-6	10
	妙香山人 (金起田)	먼저 당신 自身の 自我에 眞理가 잇슬지어다	14	1921.08	8쪽	? @@	11
플로 베르	메레즈코우 스키(作), 金億(譯)	플로베르論 (賞歎의 價値가 있는 이 論文을 英譯에서 重譯하야써 가티 玩賞하 라고 한다.)	15	1921.09	16쪽	?	12

비고 :

- ① 카펜터에 관한 글, *와 **는 동일한 기사임.
- ② @ - 러셀의 경우 김기전은 주요 내용을 <표 2>의 '8-3'에서 인용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른 전거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적어도 전거가 두 군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 ③ @@ - 필자는 「天使의 翼」의 결론을 번역했다고 밝혔다.
- ④ '전거'란의 숫자는 <표 2>의 '번호'란에 있는 숫자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인물이 2회에 걸쳐 소개되거나 동일한 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있어서, 모두 12편의 글에서 소개되는 근대사상가는 8명이다. 이 가운데 인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6인의 인물에 관한 9편의 글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주 대상을 인용처가 확인되는 9편의 글, 6인의 인물로 한정하고자 한다.¹³⁾

13) 당시에 입센이나 플로베르에 대한 조선 청년들의 관심도 컸다고 보이지만 <표 2>의 전거로부터 인용되지는 않았으며 인용처를 추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두 소개 글은 문예사조에 관한 글로서, 『개벽』 목차에서의 위치를 봐도 목차 말미의 '문예란'에 위치하고 있어 목차 전반부에 배치된 다른 글들과 다소 구별된다. 또한 나머지 글들 중 다수가 『개벽』 주간이던 소춘(小春) 김기전(金起田)이 쓴 글이라서

<표 2> <표 1>에 소개된 근대사상의 인용처¹⁴⁾

번호	『근대사상16강』	인용	번호	『사회개조의 8대사상가』	인용
16-1	제1강. 근대사상의 개관		8-1	1. 마르크스	
16-2	제2강. 레오나르도다빈치와 문예부흥		8-2	2. 크로포트킨	
16-3	제3강. 근대주의의 제1인자 루소	◎	8-3	3. 러셀	◎
16-4	제4강. 니체의 초인 철학	◎	8-4	4. 톨스토이	
16-5	제5강. 개인주의자 맑스 스탈나, 기타		8-5	5. 모리스	
16-6	제6강. 톨스토이의 인도주의		8-6	6. 카펜터	◎
16-7	제7강. 토스토예프스키의 愛의 종교		8-7	7. 입센	
16-8	제8강. 입센과 제3제국		8-8	8. 케이	◎
16-9	제9강. 다윈의 진화론				
16-10	제10강. 졸라의 자연주의				
16-11	제11강. 플로베르와 허무사상				
16-12	제12강. 제임스의 프래그머티즘	◎			
16-13	제13강. 오이켄의 신이상주의				
16-14	제14강. 베르그송의 직관의 철학				
16-15	제15강. 梵의 行者 타고르				
16-16	제16강. 로망롤랑의 眞勇주의				

출전 : ① 中澤臨川, 生田長江 編, 1921(1915) 『近代思想十六講』, 東京, 新潮社

② 生田長江·本間久雄 共著, 1920 『社會改造の八大思想家』, 東京, 東京堂書店
 ‘번호’란의 ‘16-1’, ‘8-1’ 등은 인용처와 인용기사를 비교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것이다.
 ‘인용’란의 ‘◎’ 표시는 『개벽』에 소개된 글의 저본이라는 뜻이다.

니체, 루소, 제임스의 소개 기사는 1915년 12월에 일본에서 처음 출간된 『근대사상16강』(이하 ‘『16강』’으로 줄임)의 1921년 출판본을 저본으로 삼았으며,¹⁵⁾ 엘렌 케이, 러셀, 카펜터의 소개 기사는 역시 일본에서 1920년 11월에 첫 출간된 『사회개조의 8대사상가』(이하 ‘『8대사상가』’로 줄임)를

이 글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당시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 경향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14) 허수의 박사논문(허수, 2005 앞의 책, 66쪽)에서 재인용.

15) 본 논문에서는 『近代思想十六講』의 27판본(1921년 3월 발간)을 비교·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저본으로 했다.¹⁶⁾ 『16강』의 공동편자는 나카자와 린센(中澤臨川 : 1878~1920)과 이쿠타 초코(生田長江 : 1882~1936)이다.¹⁷⁾ 『16강』은 서구 근대사상가 15명의 생애와 사상을 집약해서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했는데,¹⁸⁾ 여기에는 서양문명을 물질적·헬레니즘적인 것으로 보고 동양문명을 정신적·헤브라이즘적인 것으로 보면서 새로운 세계문명은 동서양 문명의 합류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 편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었다.¹⁹⁾ 즉, 이 책에는 동서양 문명의 융합을 지향하고 그 융합의 주체로 일본을 상정하고자 했던 다이쇼기 일본 지식인의 욕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한편 『8대사상가』의 편집에는 『16강』의 편자였던 이쿠타 초코와 함께 혼마 히사오(本間久雄 : 1886~1981)가 참여했다.²⁰⁾ 『8대사상가』도 『16강』

16) 본 논문에서는 『社會改造の八大思想家』의 재판본(1920년 12월 발간)을 비교·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17) 나카자와는 1900년대 말 무렵 자연주의 사조에 밀착한 바 있었는데, 1914년 초부터는 『중앙공론』지의 문예시평을 담당하는 등 문예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신이상주의적(新理想主義的) 입장에 서서 다이쇼기(大正期)의 문예사조를 주도했던 인물이다.(日本近代文學館 編, 1977 『日本近代文學大事典』 第二卷 人名(こ～な), 講談社, 494쪽) 이쿠타 또한 1900년대 말 무렵에는 자연주의나 상징주의에 관한 글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었는데, 1914년 무렵부터는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등의 인물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시야를 문단비평에서 사회문제로 확장해 나갔다.(日本近代文學館 編, 1977 『日本近代文學大事典』 第一卷 人名(あ～け), 講談社, 79쪽) 1915년 『16강』을 집필할 당시 두 편자의 관심은 자연주의에서 상징주의나 신이상주의로 이동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론적 측면에서는 이런 유사성이 두 사람을 『16강』의 편자로 참여하게 했던 공통분모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16강』은 1921년 3월 현재 27판, 1925년에는 70판을 초과했고 1926년에는 80판이 발행될 만큼 독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19) 中澤臨川·生田長江 編, 1921(1915) 앞의 책, 19쪽. 인도의 타고르가 동양정신의 대변자로서 제시되었다.

20) 와세다 대학 출신의 영문학도였던 혼마는 1900년대 말부터 자연주의계열의 신진

처럼 주요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요약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으나, 인물들을 일정하게 갈라짓지 않고 단순 소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8대사상가』는 개조론의 대중적인 소개서로는 초기의 것으로서, 일본에서 아직 개조론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의 인식을 반영하는 저서로 보인다.²¹⁾

2. 주요 인물별 소개 양상

이 장에서는 인용처가 확인된 6명의 소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²²⁾ 『개벽』에 소개된 글은 모두 저본이 되는 책의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번역했다. 여기서는 소개자의 관심사, 그리고 소개과정에 개입된 선택과 배제의 문제 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 인물별로 소개지는 저본에서 어떤 장(章)을 취사선택해서 어떻게 재배열했는가, 둘째, 특정 장에서 어떤 정도의 비율로 인용했으며 그 결과 글 전체에서 그 장의 중요도는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평론가로서 활약하기 시작했으나 다이쇼 전반기에는 엘렌 케이의 사상에 크게 영향받아 그녀에 관한 저작을 출간했으며 오스기 사카에와 함께 일본에서 민중예술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8대사상가』를 출간할 당시 그는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日本近代文學館 編, 1977 『日本近代文學大事典』 第三卷 人名(に~わ), 講談社, 213~214쪽)

21) “「개조」라는 말이 주로 사회주의적인 사회개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22년 12월 新潮社에서 간행된 宮島新三郎·相田隆太郎 『改造思想十二講』에도 보인다”(大門正克·安田常雄·天野正子 編, 2003 『近代社会を生きる』, 吉川弘文館, 253쪽)

22) 개별 인물에 관한 사상 내적인 접근이나 통시적인 접근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이 장에서의 분석은 추후에 해당 인물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데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셋째, 소개자가 원문에서 누락시킨 내용과 새로 첨가한 내용은 각각 무엇이든 용어 및 개념상의 변화는 없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 장의 <표 3>에서 <표 8>까지는 개별 인물에 대한 소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저본의 인용처와 『개벽』 소개글의 비교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사항 가운데 첫째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각 인용처의 장별로 일련번호(표의 'A'란에 있는 숫자)를 붙이고 『개벽』의 소개 기사 중 동일한 내용이 인용된 곳에는 '인용(a)'란처럼 해당 일련번호를 적었다. 저본에 없는 내용을 『개벽』의 소개자가 첨가했을 경우에는 '서두'나 '첨언' 등으로 표기했다. 둘째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먼저 인용처와 『개벽』 글의 '장별 비중'을 파악('B'와 'b')해서 두 곳에서 각 장의 내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했다. 이 때 각 내용을 '행' 단위로 계산했다. '서두'나 '첨언' 등의 비중이 높거나 취사선택의 정도가 각 장별로 편차가 심할 경우 양자 사이에서 특정 장의 비중에 의미있는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나아가 장별 인용율('c'), 즉 『개벽』이 주요 인용처의 내용을 어느 정도 비율로 인용하는지를 장 단위로 알아보기 위해, 『개벽』에서 인용된 내용을 장별로 파악한 뒤 그 내용을 인용처의 '행' 수로 환산('b3')하여 비교의 편의를 도모했다.²³⁾

1) 니체·루소·제임스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김기전은 『16강』에서 니체, 루소, 제임스에 관한 내용을 각각 『개벽』 제1호·제2호, 제5호, 제6호에 실었다. 소개된 순서대로 먼저 니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23) 셋째 사항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면서 본 논문 제3장에서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개벽』의 글에는 저본에는 없는 강조점 등이 자주 표시되는데, 이런 점을 소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서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김기전은 니체의 생애에 관한 글을 『개벽』 제1호에, 사상에 관한 글을 『개벽』 제2호에 각각 나누어 실었다. 생애에 관해서는 『16강』의 제4장 ‘니체의 초인철학’으로부터 제사(題辭) 및 니체 생애를 개관하는 부분인 1장, 2장의 내용을 인용했고, 사상에 관해서는 7장~9장의 내용을 인용했다. 니체의 생애와 작품을 부연하는 저본의 3장~6장과 사상 가운데 10장의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다. 그가 3~6장을 제외한 것은 그의 말대로 ‘지면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²⁴⁾

김기전은 『개벽』 제2호 글 중 ‘신생의 고(苦) - 영원윤회설’이란 장의 내용 대부분을 저본의 7장 ‘니체의 세계관 - 영원윤회’에서 인용했다. 또한 ‘초현인 - 그의 초인주의’ 장의 내용은 저본 8장의 전반부 내용을 끌어와서 채웠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인데, 그는 ‘약즉악(弱卽惡), 강즉선(強卽善)’이란 제목의 장에서는 다소 복잡한 인용방식을 취했다. 이 제목은 저본 10장의 첫 문장, “강즉선(強卽善), 약즉악(弱卽惡), 이것이 그의 도덕이다”에서 취했고,²⁵⁾ ‘약즉악, 강즉선’이란 장의 대부분은 저본 8장의 후반부에 있는 ‘초인의 도덕’에 관한 내용을 이끌어 왔으며, 같은 장의 마지막 일부 내용(원문환산으로 9행)은 저본의 9장 ‘새로운 도덕’ 내용으로 채웠다. ‘약즉악, 강즉선’ 장의 구성이 이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인용상의 공통점도 보인다. 모두 ‘도덕’과 관련한 부분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이다.

24) 『개벽』 제1호 글 마지막 부분에서 김기전은, “次號에 선생의 작품과 사상을 소개 하리라”고 했으나, (小春, 1920.6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푸르트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개벽』 제1호, 37쪽) 『개벽』 제2호 글의 첫머리에서, “실제 적고저 하니 도저 2, 3頁(쪽-인용자)로는 그의 작품 並 사상을 소개할 수 없다 … 極簡單히 선생의 사상 뿐을 소개하리라”고 했다. (妙香山, 1920.7 「新-人生標의 樹立者 푸르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개벽』 제2호, 73쪽)

25) 中澤臨川·生田長江 編, 1921(1915) 앞의 책, 149쪽

<표 3> 김기전의 니체 소개양상²⁶⁾

『16강』 제4강 : 니체의 초인 철학	인용처 (A)	장별 비중(B)	
題辭		B1(행)	B2(%)
1. 니체의 생애와 그 성격(1)	1-1	92	11.1
2. 니체의 생애와 그 성격(2)	1-2	65	7.8
3. 니체와 쇼펜하우어	1-3	55	6.6
4. 비극의 탄생	1-4	83	10.0
5. 니체와 바그너	1-5	35	4.2
6. 준비의 시기	1-6	84	10.1
7. 니체의 세계관 - 영원윤회	1-7	79	9.5
8. 超人 - 새로운 價値表	1-8	110	13.2
9. 새로운 도덕	1-9	154	18.5
10. 전쟁의 철학	1-10	63	7.6
	(계)	832	100



『개벽』		인용 (a)	장별 비중(b)			인용율(c) b3/B1*100
제1호 :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푸리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개벽기준		원문환산	
			b1(행)	b2(%)	b3(행)	
제2호 : 新-人生標의 樹立者 푸리드리취 니 체 先生을 紹介함						
제1호	(도입)	1-0	14	3.5	12	100
	선생의 일생과 그 성격	1-1	142	35.3	38	41.3
		1-2			36	55.4
	(첨언1)	—	24	6.0	—	—
	(첨언2)	—	4	1.0	—	—
제2호	新生의 苦 - 永遠輪回說	1-7	83	20.6	41	51.9
	超賢人 - 그의 超人主義	1-8	52	12.9	49	44.5
	弱卽惡, 強卽善	1-8	62	15.4		
		1-9			9	5.8
		(첨언3)	—	21	5.2	—
		(계)	402	99.9	평균인용율	49.8

첨언1 - 36:하05~36:하19 (『개벽』 36쪽 하단 5행에서 19행까지라는 뜻.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

첨언2 - 73:01~73:04 (1단 편집의 경우)

첨언3 - 78:하07~78:하28

26) ‘도입’ 처럼 괄호를 친 것은 제목은 없으나 내용상 ‘도입’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소

이상에서 보았듯이 김기전은 저본의 니체 관련 글로부터 니체의 세계관, 인간론, 도덕론에 각각 해당하는 영원윤희설, 초인주의, 강자의 도덕을 중심으로 소개했고, 철학을 주로 다룬 10장 내용은 제외했음이 확인된다.

다음은 루소에 관해서 살펴보자.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김기전은 『개벽』 제5호의 소개 글을 『16강』의 제3강에서 인용했다. 니체의 소개에 비하면 비교적 고르고 평이한 방식으로 인용했지만, 저본에서 4장의 ‘인간관—도덕관’과 9장 ‘문학자로서의 루소’는 제외했다. 이 시점에서 김기전의 관심이 서구 근대의 ‘사상’에 있었음을 상기하면 9장이 제외된 것은 이해되지만 4장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개자가 저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한 부분에는 ‘(첨언)’이라고 했다. 『개벽』 글에서 각 장별로 본문 중간에 삽입된 ‘첨언’은 5행 미만일 경우 무시했으나 장의 첫머리나 마지막일 경우 표기했다.

‘장별비중’(B1, b1)에서 행 숫자에는 제목도 포함시켰으며 짧은 행도 모두 1행으로 계산했다.

‘장별비중’(B2, b2) 숫자는 ‘장별비중’(B1, b1)의 행 숫자를 백분율로 고친 것이다.

‘원문환산’(b3)은 저본과 『개벽』의 비교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개벽』에 인용된 내용을 저본과 대조하여 저본의 행수로 치환해서 계산한 것이다. 이 때 인용부분이 저본 행의 절반을 넘을 경우에는 1행으로 계산했으며, 절반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0행으로 처리했다. 저본이 1단 편집인데 비해, 『개벽』의 글은 2단 편집이 많아 1행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고로 동일한 내용의 경우 『개벽』의 행 숫자가 저본에 비해 많게 나온다.

이상의 기준은 나머지 5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하의 표에서는 각 인물별로 특기할 사항만 표시한다.

<표 4> 김기전의 루소 소개양상

『16강』	인용처	장별 비중(B)	
제3강. 근대주의의 제1인자 루소	(A)	B1(행)	B2(%)
題辭	1-0	13	1.6
1. 루소의 일생	1-1	125	15.6
2. 루소의 성격	1-2	60	7.5
3. 자연으로 돌아가라	1-3	43	5.4
4. 인간관 - 도덕관	1-4	86	10.8
5. 「인간불평등원인론」과 「민약론」	1-5	96	12.0
6. 교육관 - 「에밀」(1)	1-6	144	18.0
7. 교육관 - 「에밀」(2)	1-7	110	13.8
8. 여성관	1-8	48	6.0
9. 문학자로서의 루소	1-9	74	9.3
	(계)	799	100



『개벽』 제5호 近代主義의 第一人 루소先生	인용 (a)	장별 비중(b)			인용율(c) b3/B1*100
		개벽기준		원문환산	
		b1(행)	b2(%)	b3(행)	
그의 일생과 성격	1-1	147	24.8	65	52.0
	1-2			23	38.3
	(첨언1)	19	3.2	—	—
그의 표어 - 자연에 歸 하라	1-3	29	4.9	20	46.5
	(첨언2)	9	1.5	—	—
인생불평등원인론과 민약론	1-5	109	18.4	63	65.6
그의 교육관 - 「에밀」	1-6	231	39.0	82	56.9
	1-7			53	48.2
	(첨언3)	8	1.3	—	—
여자는 일 從物 - 그의 여성관	1-8	35	5.9	16	33.3
첨언	(첨언4)	6	1.0	—	—
	(계)	593	100	평균인용율	48.7

첨언1 - 66:하14~66:상11 / 첨언2 - 66:하21~67:상08

첨언3 - 75:상16~75:하01 / 첨언4 - 76:상17~76:하03

4장 내용은 루소가 유물론에 반대했고 유신론을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김기전이 그 내용 때문에 인용에서 배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배제 이유를 루소 자체에서 찾기 보다는 이미 이루어졌던 니체

소개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기전이 니체 소개 글에서 니체의 인간관·도덕관을 인용했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한된 지면 등의 사정으로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루소에게서는 동일한 범주의 인간관·도덕관 소개는 생략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는 저본에서 5장 ‘인간불평등기원론과 민약론’과 6·7장 ‘교육관 - 『에밀』’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인용했다. 즉, 그는 루소의 정치·경제론 및 교육론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5> 김기전의 제임스 소개양상

『16강』 제12강. 제임스의 프래그머티즘 題辭	인용처 (A)	장별 비중(B)		
		B1(행)	B2(%)	
	1-0	14	2.8	
1. 輓近철학의 신경향	1-1	97	19.1	
2. 프래그머티즘의 발생	1-2	94	18.5	
3. 윌리엄 제임스의 일생	1-3	47	9.3	
4. 제임스의 인식론	1-4	72	14.2	
5. 프래그머티즘의 요지	1-5	28	5.5	
6. 사고와 행위와 진리	1-6	109	21.5	
7. 프래그머티즘의 인생관	1-7	47	9.3	
		508	100.2	

↓

『개벽』 제6호 近世哲學界의 革命兒 제임스 선생	인용 (a)	장별 비중(b)			인용율(c) b3/B1*100
		개벽기준		원문환산	
		b1(행)	b2(%)	b3(행)	
그의 일생	1-3	59	17.9	31	66.0
실용주의의 발생경로	1-1	124	37.7	79	81.4
실용주의의 요의	1-2	50	15.2	30	31.9
푸라끄마디즘의 인생관	1-7	45	13.7	24	51.1
그의 인식론	1-2	47	14.3	9	9.6
	1-4			13	18.1
(첨언)	-	4	1.2	-	-
		329	100	평균인용율	43.0

첨언 - 54의2:하14~54의2:하17

김기전의 윌리엄 제임스 소개양상은 <표 5>와 같다. 김기전은 『개벽』 제6호의 소개 글에서 제임스의 일생, 실용주의 발생경로, 요의, 인생관, 제임스의 인식론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저본의 해당 내용을 인용했다. 저본인 『16강』의 12장 내용이 니체나 루소처럼 ‘제임스의 일생, 사상’ 순서로 되어 있진 않았는데, 김기전은 ‘일생-사상’ 순서로 목차를 설정해서 그에 맞는 내용을 저본에서 인용했다. 그가 ‘실용주의의 요의’ 내용을 저본의 5장 ‘프래그머티즘의 요지’가 아니라 2장 ‘프래그머티즘의 발생’에서 취한 이유는 2장 ‘발생’의 해당 내용이 간명한 소개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저본의 6장 ‘사고와 행위와 진리’ 내용은 12장 전체에서 양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21.5%)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전은 아예 인용에서 제외시켰다. 편자 말대로 저본 6장은 프래그머티즘을 ‘심도있게 해부하는 내용’이어서,²⁷⁾ 독자에게 ‘소개’를 위주로 했던 김기전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김기전이 제임스에 주목한 이유는 제임스의 실용주의 ‘철학’에 있었는데, 이는 그의 니체 소개와 밀접하게 관련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제임스를 소개한 이유를 “그의 철학이 독특함을 보이고져 함”이라고 밝혔다.²⁸⁾ 프래그머티즘은 플라톤 이래의 서양철학이 가진 주지주의(主知主義) 철학을 대체한 ‘사람본위 - 즉 인본주의의 사상’이자 ‘주정의주의(主情意主義)’ 철학이라는 것이다.²⁹⁾ 김기전은 ‘사람본위 - 즉 인본주의’와 ‘주정의주의’ 부분에, 저본과 달리 강조점을 찍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가 현대 철학사조 속에서 프래그머티즘 철학의 동향을 밝히고 있는 저본의 1장 내용을 가장 높은 비율(81.4%)로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와 같이 김기전은 곧이어 제임스의 ‘철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할 생각을 갖

27) 中澤臨川·生田長江 編, 1921(1915) 앞의 책, 361쪽

28) 妙香山人, 1920.12 「近世哲學界의 革命兒 제임스 선생」 『개벽』 제6호, 54쪽

29) 妙香山人, 「近世哲學界의 革命兒 제임스 선생」, 50~52쪽

고 있었으므로 니체 ‘철학’의 소개는 자제한 것 같다. 김기전은 니체 소개에서 ‘전쟁의 철학’을 제외했었다. 당시 그가 니체 철학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서 “최근 윌리엄 제임스에 의해 열렬히 제창된 행위주의 즉 프래그머티즘은 이미 니체에게서 그 맹아를 볼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³⁰⁾ 즉, 철학과 관련하여 니체와 제임스의 인용에서도 ‘소개의 경제’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엘렌 케이·러셀·카펜터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8대사상가』에서는 엘렌 케이, 러셀, 카펜터에 관한 내용이 각각 『개벽』 제8호·제9호, 제11호, 제12호~제14호에 실렸다.

엘렌 케이 소개 글을 『개벽』 제8호, 제9호에 연재한 사람은 노자영이다.³¹⁾ 그는 자신의 소개 글을 『8대사상가』의 ‘8. 케이’로부터 끌어왔다. 자신이 삽입한 글로 보이는 ‘첨언’ 8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내용을 저본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의 목차나 순서, 95.5%에 달하는 높은 평균인용율 등은 노자영이 엘렌 케이에 관해서 저본 내용을 거의 전문 ‘번역’에 가깝게 소개했음을 보여준다.³²⁾ 본 논문에서 다루는 6인의 서구 근대사

30) 中澤臨川·生田長江 編, 1921(1915) 앞의 책, 152쪽

31) 노자영은 인용처의 정보를 일부나마 밝히고 있다. 즉 “生田군의 『엘렌케이』론을 토대 삼고 그의 인물 및 사상 일반으로 세상에 소개코저 하노라”고 했다.(盧子泳, 1921.3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續)」 『개벽』 제8호, 46쪽) 이때 그가 거론한 인용처 『엘렌케이』는 『8대사상가』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엘렌 케이’를 가리킨 것으로 생각되며 ‘生田군’은 이쿠타 초코(生田長江)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대사상가』 공동편집자 두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 글은 혼마 히사오가 쓴 것이 거의 확실하나, 노자영은 공동편집자 중 이름이 선두에 나온 이쿠타를 대표격으로 거론했다고 생각된다.

32) 노자영의 경우 “瑞典(스웨덴-인용자)의 남부 스몰란드(The District Of Sm-aland)”

상가 가운데 ‘번역’ 소개에 가장 가까운 글이다. 단, 이런 평가는 저본의 6장을 제외했을 때 타당하다. 그는 왜 하필이면 ‘이상적 부인관’의 내용만 모두 제외시켰을까.

<표 6> 노자영의 엘렌 케이 소개양상

『8대사상가』		인용처 (A)	장별 비중(B)		
8. 케이			B1(행)	B2(%)	
1. 小傳 및 인물		1-1	102	20.6	
2. 그의 연애도덕론		1-2	60	12.1	
3. 연애와 결혼		1-3	64	12.9	
4. 자유이혼론		1-4	110	22.2	
5. 그의 모성관		1-5	63	12.7	
6. 이상적 부인관		1-6	97	19.6	
		(계)	496	100.1	

↓

『개벽』		인용 (a)	장별 비중(b)			인용율(c) b3/B1*100
제7호 :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 제8호 :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續)			개벽기준		원문환산	
			b1(행)	b2(%)	b3(행)	
	(첨언)		6	1.1	-	-
제7호	1. 그의 생애와 인물	1-1	150	27.6	100	98.0
	2. 그의 연애도덕론	1-2	85	15.6	60	100
	3. 연애와 결혼	1-3	79	14.5	61	95.3
	4. 자유이혼론	1-4	146	26.8	105	95.5
제8호	5. 그의 모성관	1-5	76	14.0	56	88.9
	(첨언)	-	2	0.4	-	-
		(계)	544	100	평균인용율	95.5

첨언 - 46:상01~46:상06

와 같이 서술하여, 지명이나 저서명 등에서 저본에도 없는 내용을 붙였다. 인용처의 명시나 이런 추가정보 등은 이전의 감기전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노자영이 『개벽』의 글을 쓸 당시 엘렌 케이에 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었거나 『8대 사상가』 이외에 또 다른 참고자료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저본과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은 양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노자영 자신은 글 마지막에서, “이외에 그의 부인관(婦人觀)과 그의 독신주의를 말하여야 할 것이나 번잡하기 삭(削)하나다”라고 했다.³³⁾ 이 ‘번잡함’은 지면의 제한으로 생각되므로 그것은 노자영이 엘렌 케이의 부인관을 생략한 일차적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엘렌 케이의 부인관은 저본 6장에 본격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저본 5장 ‘그의 모성관’ 마지막 부분에도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⁴⁾ 여기서도 지면 제약과도 관련하여 일종의 ‘소개의 경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버트란트 러셀에 관한 소개양상은 <표 7>과 같다. 김기전은 러셀에 관한 소개 글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전거를 활용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확인된 두 전거는 『8대사상가』와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던 월간지 『개조(改造)』 1921년 3월호 내용이다. 김기전은 서구 근대사상가 중 러셀의 소개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인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7> 김기전의 러셀 소개양상

	『8대사상가』 3. 러셀	인용처 (A)	장별 비중(B)	
			BI(행)	B2(%)
제 1 전거	1. 才人 러셀	1-1	53	9.1
	2. 러셀의 철학 -러셀의 사상발달 경로-	1-2	92	15.8
	3. 러셀의 사회개조론	1-3	188	32.2
	4. 러셀 개관	1-4	250	42.9
		(계)	583	100
제 2	『改造』	인용처	장별 비중(B)	

33) 盧子泳,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續)」, 50쪽

34) 엘렌 케이의 부인관이 5장, 6장에 걸쳐 있음은 다음 문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저본 6장의 첫 문장은 “이상에 의해 엘렌 케이가 부인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는 대체로 밝혀졌다고 생각되는데, 이어서 그녀의 이상적 부인관을 서술하여 이상의 뜻을 다시 선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生田長江·本間久雄 共著, 1920 『社會改造の八大思想家』, 東京, 東京堂書店, 385쪽)

전거	1921년 3월호	(A)	B1(행)	B2(%)	
	『現下 혼돈상태의 諸 원인』	2-1	349	100	
		(계)	349	100	

↓

『개벽』 제11호	인용 (a)	장별 비중(b)			인용율(c) b3/B1*100
		개벽기준		원문환산	
		b1(행)	b2(%)	b3(행)	
(첨언)		22	5.2	—	—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1-1	46	10.9	15	28.3
新實在論上에 立한 그의 철학	1-2	65	15.4	43	46.7
그의 사회개조관	1-3	114	27.0	81	43.1
그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1-4	72	17.0	39	15.6
그의 현하 혼돈상태관	2-1	152	—	90	25.8
움직이지 못할 그의 신념	1-3	104	24.6	50	26.6
	* (계)	423	100.1	평균인용율	32.1

— 바르트란드·라셀, 1921.3 「現下の渾沌狀態の諸原因」, 『改造』 3월호, 2~22쪽

* b1, b2의 합계에 각각 해당하는 423(행), 100.1(%)은 '2-1'에 해당하는 숫자 152(행)를 제외한 것이다.

* 평균인용율 32.1%도 '2-1'에 해당하는 25.8%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이다.

첨언 — 25:상01~25:하07

첫째, 『개벽』 제11호의 소개 글은 모두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4개의 장은 저본, 즉 『대사상가』 ‘3. 러셀’의 1장 ~ 4장 내용을 순서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목의 경우 저본 2장과 4장 제목을 크게 변형시켜, 각각 ‘신실재론’,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를 삽입시켜 놓았다. 둘째, 다른 사상가의 소개방식과 달리 김기전은 두달 전 『개조』에 실린 러셀의 정세분석 기사, ‘현하 혼돈상태의 제 원인’을 발췌·인용했다. 이는 당시 러셀에 대해 국내외 지식인이 가졌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³⁵⁾ 셋째, 가장 중요한

35) 러셀은 1920년 9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활동하고 있었고 1921년 7월 일본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므로 그에 대한 국내외 지식인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류시현, 2006(a) 앞의 논문, 205~209쪽) 김기전의 러셀 소개 글을 보면, 두 저본 이외에 러셀에 관한 다른 정보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양적 비중이 낮고 추적도 어려워 여기서는 그에 관한 분석은 생략했다.

특징으로, 김기전은 제일 마지막 장인 ‘움직이지 못할 그의 신념’ 내용을 저본의 3장 ‘러셀의 사회개조론’에서 인용했다. 즉, 그는 저본에서 러셀의 사회개조론을 다루는 3장의 일부를 『개벽』의 3장에서 소개한 뒤, 나머지 부분은 『개벽』 기사의 마지막 장인 6장에 인용하고 있다. 두 곳의 인용부분을 모두 합하면 저본의 행수로 환산하여 131행으로, 이 경우 3장의 인용율은 69.7%가 되어 장별 인용율 중에서 가장 높다.³⁶⁾ 이것은 ‘철학’의 46.7%보다 무려 23%가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김기전은 러셀로부터는 사회개조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카펜터의 소개양상은 <표 8>과 같다. 카펜터의 경우 『8대사상가』의 ‘6. 카펜터’는 5개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박사직은 『개벽』 제12호 소개 글의 장제목과 순서 등에서 저본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글은 『개벽』 제13호에도 내용의 변화 없이 다시 실렸다.³⁷⁾

<표 8> 박사직의 카펜터 소개양상

『8대사상가』 6. 카펜터	인용처 (A)	장별 비중(B)	
		B1(행)	B2(%)
1. 인간 카펜터	1-1	113	16.3
2. 카펜터의 근대과학관	1-2	110	15.9
3. 카펜터의 예술관	1-3	111	16.0
4. 카펜터의 현대문명관	1-4	146	21.0
5. 카펜터의 사회개조론	1-5	214	30.8
	(계)	694	100

36) 3장의 내용은 러셀의 사회개조론을 담고 있는 대표 저서인 『사회개조의 원리』 서문 및 본문에 대한 인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김기전의 높은 관심은 러셀의 사회개조론 및 『사회개조의 원리』에 대한 당시의 높은 관심과 같은 맥락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37) 박사직의 글이 『개벽』 제13호에 그대로 다시 실린 것은, 『개벽』 제12호가 압수되고 임시호도 발행되지 못했던 사실과 관계 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최수일, 2005 『『개벽』에 대한 서지적 고찰 - 소장처와 판본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27, 소명, 287쪽 참조)

↓					
『개벽』 제12호 : 改造界의 一人인 에드워드·카 펜타아를 紹介함 제13호 : 人生은 表現이니라, 에드워드· 카펜타아를 紹介함	인용 (a)	장별 비중(b)			인용율(c)
		개벽기준		원문환산	b3/B1*100
		b1(행)	b2(%)	b3(행)	(%)
(서두)	1-1	37	6.0	22	19.5
1. 씨의 출처와 약력	1-1	114	18.5	70	61.9
2. 씨의 근대과학에 대한 달관은 이것이다.	1-2	137	22.2	89	80.9
3. 씨의 예술에 대한 관찰은 여하하였는가	1-3	82	13.3	56	50.5
4. 씨의 현대문명에 대한 관찰은 여하하였는가	1-4	147	23.8	108	74.0
5. 씨의 사회개조에 대한 언론은 어떠한가	1-5	100	16.2	73	34.1
	(계)	617	100	평균인용율	53.5

박사직은 ‘인간 카펜터’라 되어 있는 저본의 1장을 각각 서두와 1장 ‘씨의 출처와 약력’에 나누어 실었다. 양자를 합하면 저본 1장의 인용율은 81.5%로 가장 높다. 이러한 인용율을 염두에 두고 보면 박사직의 카펜터 소개 글에서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저본에서는 카펜터의 사회개조론 관련 서술이 그의 과학관이나 예술관 관련 내용(약 16%)의 두 배에 해당하는 최대분량(30.8%)임에도 불구하고, 박사직은 자신의 글에서 사회개조에 관한 글을 과학에 관한 글의 비중(22.2%)보다 더 낮게 설정(16.2%)했고, 이와 연동해서 저본의 ‘사회개조론’ 장을 가장 낮은 비율로(34.1%) 인용했다. 그가 카펜터의 현대문명 비판, 근대과학관 등은 높게 인용했고, 또 그러한 내용이 카펜터의 사회개조론과 깊이 결부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개조론은 낮게 인용한 이유는 역시, 러셀의 사회개조론 소개와 연동되는 ‘소개의 경제’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카펜터의 소개에서 박사직은 약간의 동요와 불일치를 보이는 가운데 점차 그의 예술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박사직은 『개벽』 제12호에서 카펜터의 사회개조론을 축소시키면서도 제목에서

는 카펜터를 ‘개조계의 1인’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한 달 뒤에는 제목에서 카펜터를 수식하는 문구를 ‘인생은 표현이니라’로 바꾸었다. 이 문구는 카펜터의 예술관을 다룬 저본 3장에 나온 것인데, 박사직은 그것을 원문처럼 강조점이 붙은 채로 인용했다.³⁸⁾ 이런 사실을 보면, 박사직을 포함한 『개벽』 주도층이 카펜터로부터 부각할 점을 사회개조론에서 예술론으로 옮겨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곧이어 『개벽』 제14호에서 김기전이 카펜터의 예술관을 집약한 『천사의 날개』를 번역·소개한 사실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중역적 소개’와 ‘소개의 경제’

지금까지 근대사상가 6인에 대한 소개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하면서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에서 드러난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개벽』 주도층은 서구 근대사상 및 사상가를 ‘일본’이라는 창구를 통해 접촉·소개했다는 점에서 서구 근대문화를 ‘중역적(重譯的)으로 소개’했다고 할 수 있다. 김기전 등이 저본으로 삼은 『16강』과 『8대사상가』는 그 책의 편집방향 자체가, 편자들이 개조론을 포함한 서구 근대사상을 일본 사회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요약과 정리에 있었다. 따라서 편자 자신들이 소화해서 풀어 쓴 대목도 있지만, 해당 사상가의 작품을 약간의 설명을 가미하면서 직접 인용하는 식으로 일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³⁹⁾

38) 生田長江·本間久雄 共著, 1920 앞의 책, 275쪽; 朴思稷, 1921.6 「改造界의 一人인 에드워드·카펜타아를 紹介함」 『개벽』 제12호, 50쪽

39) 예를 들면, 러셀에 관한 『8대사상가』의 글이 그의 『사회개조의 원리』 내용을 단순 인용하는 장이 있고, 이런 양상은 루소의 『민약론』, 『에밀』 등의 내용을 나열적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넓은 의미에서 ‘서구 근대문화의 중역적 소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근대사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제약된 식민지 상황에서 『개벽』 주도층은, 일본 지식인의 서구 이해방식을 모방하고 ‘재 활용’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역적 소개’가 일본 저본에 대한 기계적 번역과 추종으로 흐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주어진 조건의 제약 위에서만 『개벽』 주도층은 서구 근대사상 소개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제반 상황, 소개자 자신들의 처지 등에 비추어 ‘능동적인 개입’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에서 살펴 볼 ‘소개의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소개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애초 『개벽』 초기 지면의 서구 근대사상 소개를 다루면서, 개별 인물에 국한해서 이해하는 ‘요소론적 이해’가 가진 문제점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6인 사상의 상호 관계를 당시의 소개자도 민감하게 고려했음이 분명하다면, 사상의 소개와 이해 또한 상호 제약과 상호 연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소개의 경제’에는 지면 제약이라는 구조적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서양의 해당 저서 → 일본의 요약 단행본 → 『개벽』 잡지의 소개기사’ 순서대로 지면의 제약이 심화되었고, 또한 독자들의 이해 수준도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벽』 주도층은 효과적인 소개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인다.

우선, 인용 상에 나타난 상호 관계의 문제는 동일한 저본에서 인용하는 인물 상호간에서 더욱 뚜렷이 발견된다. 예컨대 『16강』에서 김기전은 니체, 루소, 제임스를 순차적으로 소개했는데, 세 인물의 소개가 모두 6개월 안에 이루어졌음을 생각한다면, 이미 창간호의 니체 소개 시점부터 동일

로 인용하는 『16강』에서도 더러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인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저본의 세 사람 소개에 대한 구상이 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하여 서구 근대사상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인물별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이미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본 논문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16강』에서는 니체와 루소에 관한 글에서 인간관과 도덕관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 있었지만, 김기전은 『개벽』에서 니체를 소개할 때 인간관, 도덕관을 중심으로 소개한 반면, 루소의 사상 중에서는 인간관·도덕관 부분만 제외하고 정치·경제론과 교육론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기전이 니체 철학을 담은 저본의 내용을 인용에서 배제한 것도, 그가 니체의 철학을, 나중에 소개할 프래그머티즘 철학의 맥락으로 이해한 결과 중복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8대사상가』의 엘렌 케이, 러셀, 카펜터 소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러셀의 소개에서 사회개조론을 강조한 결과 카펜터를 소개할 때에는 그 초점을 사회개조론에서 예술관으로 옮겨 갔던 사실이 그 한 사례이다. 사실 근대사상 소개에서 인물별로 취한 이와 같은 ‘역할분담’은 『개벽』이나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8대사상가』에 수록된 엘렌 케이 관련 글에서, “엘렌 케이는 이상 부인운동의 선각 이외에 사회개혁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나, 여기서는 다른 것과의 배합상 주로 부인운동의 선각자적인 면모에 대해서만 서술했다(밑줄:인용자)”라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과의 배합상’이란 표현은, 소개 인물 간의 공통점을 나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물별 개성을 특화시켜서 한 데 모아 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8대사상가』 자체가 사회개조 사상가를 주제로 편집한 책이라서, 엘렌 케이의 경우 ‘사회개혁가’의 측면은 제외시키고 엘렌 케이만이 가지는 상대적 독자성, 즉 ‘부인운동의 선각자적 면모’를 부각시켰던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선택’된 엘렌 케이의 모습이 식민지 조선에 오면 다시 한번 더 ‘선택’의 과정을 겪는다는 점이다. 즉, 엘렌 케이의 경우 일본의 그 저본에서 사회개혁가로서의 측면이 배제

되고 부인운동의 선각자적 면모가 선택되었다면, 『개벽』에 와서는 그 부인운동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담고 있는 저본의 '6. 이상적 부인관'은 탈각하고 저본의 '5. 그의 모성관' 마지막 부분에 있던 '부인관 관련 서술'만 살아남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인물 간의 상호 관계 만이 아니라, 지면 제약과 독자의 수준 등을 고려한 다음의 인용 형태도 '소개의 경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기전은 『16강』에 실린 니체 관련 내용 중에서 "짜라투스트라는 항상 그 좌우에 뱀과 독수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 원문을,⁴⁰⁾ "그의 사상의 화신인 어떤 사람(그의 작품에 나타난 한 주인공)이 항상 좌우에 뱀과 독수리를 가졌으니"로 번역했다.⁴¹⁾ 김기전은 원문의 '짜라투스트라'라는 내용을 '어떤 사람' 또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조선 독자층의 지식정도 등을 고려해서 간소화된 방식으로 소개한 것이다. 나아가 니체에 대한 묘사 중 '신체도 오히려 섬약(纖弱)한 편이었다'라는 원문 내용을,⁴²⁾ '신체도 자못 강질(強質)이었다'로 소개하거나,⁴³⁾ 또한 '그는 그 수주간(數週間)을 높은 환희, 깊은 절망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지냈다'라는 대목을,⁴⁴⁾ "수일간(數日間)을 말할 수 없는 신생(新生)의 환희(歡喜) 중(中)에서 지내었다. 그러나 그 환희의 생명이 얼마나 길었는 지?"라고 옮겼다.⁴⁵⁾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니체의 '강함'을 전달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 즉 '우울', '섬약' 등의 원문 표현은 의미 축소하거나 오히려

40) 中澤臨川·生田長江 編, 1921(1915) 앞의 책, 132쪽

41) "그의 사상의 化인 或 人은 (그의 작품에 現한 一主人公) 常히 그 左右에 蛇와 鷲를 携하였나니"(妙香山人, 「新-人生標의 樹立者 푸리드리취 니체 先生을 紹介함, 78쪽)

42) 中澤臨川·生田長江 編, 1921(1915) 앞의 책, 99쪽

43) 妙香山人,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푸리드리취 니체 先生을 紹介함」, 33쪽

44) 中澤臨川·生田長江 編, 1921(1915) 앞의 책, 129쪽

45) 妙香山人, 新-人生標의 樹立者 푸리드리취 니체 先生을 紹介함, 74쪽

상반된 표현으로 치환해서 소개했는데, 이런 대목도 단순한 오류나 왜곡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개·인용자는 단순히 저본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소개와 배제의 내용을 선택했고, 또한 선택된 내용에 대해서도 변형과 뒤틀기 등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다.

맺음말

『개벽』 주도층들은 1920년 6월 창간호부터 1921년 하반기까지 서구 근대사상과 인물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본 논문에서는 인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6인의 인물, 9편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벽』 주도층은 니체, 루소, 제임스의 소개에는 『근대사상16강』(=『16강』)을, 엘렌 케이, 러셀, 카펜터의 소개에는 『사회개조의 8대사상가』(=『8대사상가』)를 저본으로 활용했다.

김기전은 『16강』에서 니체, 루소, 제임스에 관한 내용을 발췌·번역해서 각각 『개벽』 제1호·제2호, 제5호, 제6호에 실었다. 그는 니체의 세계관, 인간론, 도덕론에 각각 해당하는 영원윤희설, 초인주의, 강자의 도덕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니체의 철학이 제임스의 그것과 상통한다는 인식에서, 니체의 ‘전쟁의 철학’ 부분은 소개하지 않았다. 니체의 소개에서 인간론과 도덕론 분야는 이미 소개했으므로, 루소의 소개에서 김기전은 사상 가운데 ‘인간관-도덕관’ 부분을 제외시키고 루소의 정치·경제론과 교육론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제임스에게서는 프래그머티즘이 가진 ‘인본주의’와 ‘주정의(主情義)주의’의 철학적 경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했다.

한편 『8대사상가』에서는 엘렌 케이, 러셀, 카펜터에 관한 내용이 각각 『개벽』 제8호·제9호, 제11호, 제12호~제14호에 실렸다. 엘렌 케이를 소개한

사람은 노자영이다. 여기서 노자영은 평이하고 높은 인용율을 보였지만, 지면 제약 등의 원인으로 저본의 6장 ‘이상적 부인관’ 장을 제외시키고, 대신 그 앞장인 5장 ‘모성관’ 마지막 부분에 요약된 부인관 관련 서술을 선택했다. 러셀의 소개 글에서 김기전은 두 개 이상의 전거를 활용했는데 당시의 일반적 경향과 동일하게 러셀의 사회개조론에 관한 높은 관심과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었다. 카펜터를 소개한 박사직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높은 인용율을 보이는 가운데 카펜터의 사회개조론보다는 예술론을 점차 강조하고자 했다. 저본의 장별 분량을 보면 사회개조론을 다룬 장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사직은 그 부분을 가장 낮은 비율로 인용했다. 이는 사회개조론 분야의 소개가 이미 러셀의 그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대사상가 6인의 소개 양상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벽』 주도층은 서구 근대사상 및 인물을 ‘일본’이라는 창구를 통해 접촉·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근대문화의 ‘중역적 소개’ 양상을 보였다. 둘째, ‘소개’의 경계’가 작용했다. 니체 다음에 소개된 루소의 경우 인간관·도덕관의 소개가 배제되었고, 러셀 다음에 소개된 카펜터의 경우 사회개조론이 소략하게 소개된 것이 그 한 사례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본문 인용에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했던 지면의 성격이나 독자, 근대사상에 대한 이해정도 등이 고려되어, 소개 과정에서 간소화되고 실용적인 인용 방식이 두드러졌다.

투고일 : 2008. 1. 9

심사완료일 : 2008. 2. 15

주제어 : 근대사상16강, 사회개조의 8대사상가, 중역적 소개, 소개의 경계

<부표 1> 『개벽』(1920.6-1926.8)에 소개된 서구근대사상

연번	호수	발행 년월	기사제목	필자
1	1	1920.06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푸리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小春
2	2	1920.07	新-人生標의 樹立者 푸리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妙香山人
3	3	1920.08	막쓰와 唯物史觀의 一瞥 (읽은 中에서)	又影生
4	3	1920.08	社會主義의 略義	孤蝶
5	4	1920.09	『칸트』의 永遠平和論을 讀함	새봄
6	5	1920.11	近代主義의 第一人 루소 先生	妙香山人
7	6	1920.12	近世哲學界의 革命兒 제임스 선생	妙香山人
8	6	1920.12	文化主義와 人格上 平等	白頭山人
9	7	1921.01	近代文藝와 印象	玄哲
10	8	1921.01	科學上으로 본 生老病死(메치니코프)	白頭山人
11	8	1921.02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	盧子泳
12	9	1921.03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Ellen Key-(엘렌케이)(續)	盧子泳
13	9	1921.03	「톨스토이」의 藝術觀	金惟邦
14	10	1921.04	「페이엘빠하(Feuerbach)」의 「사람論」에 就하여	夜雷
15	11	1921.05	人類學界의 泰斗 「스타」 博士의 朝鮮觀	
16	11	1921.05	思想界의 巨星 빠-쥬랜드-리셀氏를 紹介함	妙香山人
17	12	1921.06	改造界의 一人인 에드워드·카펜타어를 紹介함	朴思稷
18	13	1921.07	人生은 表現이나라, 에드워드·카펜타어를 紹介함	朴思稷
19	14	1921.08	副僧正 「로차-쓰」 博士의 亞細亞人 支配論을 讀하고	白頭山人
20	14	1921.08	먼저 당신 自身の 自我에 眞理가 잇슬지어다	妙香山人
21	15	1921.09	플로베르論	메레즈코우스키(作), 金億(譯)
22	15	1921.09	獨逸의 藝術運動과 表現主義	曉鍾
23	37	1923.07	社會主義와 藝術, 新個人主義의 建設을 唱함	林蘆月
24	40	1923.10	빠르뤼스對 로만·로란間의 爭論, 클라르테운 동의 世界化(又) 1921년 12월 巴里에서.	金基鎭
25	40	1923.10	社會主義 學說 大要	白綽
26	41	1923.11	떠스터예브스키라는 사람과 및 그의 작품과	吳天錫
27	41	1923.11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立地, 社會主義學說 大 要(其二)	사카이·도시히코 講演

28	42	1923.12	唯物史觀과 唯心史觀, 社會主義學說 大要(其三)	사가이·도시히꼬 講演
29	43	1924.01	唯物史觀의 「要領」記, 社會主義學說 大要=其四	사가이·도시히꼬 講演
30	45	1924.03	歴史進化의 事實의 說明 社會主義學說 講義(終結)	堺利彦
31	46	1924.04	칼 리복네히트와 로사 룩셈부르크를 追想한, 第7週紀念祭를 마즈면서	白綽 抄譯
32	46	1924.04	世界社會主義運動의 史的 記述	小春 抄
33	48	1924.06	「惡의 花」를 심은=뽕드레르論	朴英熙
34	51	1924.09	近世社會思想史	玉川生
35	51	1924.09	民族과 階級, 現代 政治에 在한 民族과 階級과 의 關係	大山郁夫, YS譯
36	52	1924.10	싼·씨몬의 社會思想과 푸리에의 新社會案, 그 들은 이러케까지 우리에게 사색할 것을 주었 다, 近世社會思想講述(其二)	玉川生
37	54	1924.12	溫情主義의 오벤과 社會主義의 오벤, 『社會思 想史』의 其3	玉川生
38	65	1926.01	푸로레타리아 哲學, 안톤·판에콰에 의한 序論	J Die'zen 原著 崔火 雲 譯
39	66	1926.02	토마쓰 모-르부터 레닌까지	고레프(著), 쇠피(譯)
40	66	1926.02	이날에 追憶되는 두 同志, 칼과 로사를 그리워 하면서	鳴聲
41	67	1926.03	칸트哲學과 쉘조이思想(푸로레타리아 哲學(其 二))	J Dietz en 原著 崔 火雲 譯
42	68	1926.04	헤-켈 哲學과 엔겔스, (푸로레타리아 哲學(其 3))	J Dietz en 原著 崔 火雲 譯

<Abstract>

Introduction of modern ideology by Gaebyeok leaders in early
1920s
— Centering around morphological analysis —

Hur, Soo

The study aims to figure out how modern ideologies from the west were introduced by Gaebyeok leaders in early 1920s. Nietzsche, Rousseau and James were based on Modern Ideology Vol. 16 while Ellen Key, Russell and Carpenter were based on Eight Thinkers' Theory of Social Reorganization.

Gi-jeon Kim introduced the view of world and human-beings based on Nietzsche, politics and economy based on Rousseau, philosophy based on James and theory of social reorganization. In the meantime, Ja-young Roh and Sa-jik Park introduced Ellen Key and Carpenter, but in case of Ellen Key, the view of women was summarized, and in case of Carpenter, the theory of art was more emphasized than the theory of social reorganization.

Following two characteristics were found in the way six modern thinkers were introduced. First, 'translated introduction' through Japan was found. Second, redundant areas were omitted or summarized in introducing people for whom the same quotation was used.

Key Words : Modern Ideology Vol. 16, 8 thinkers of social reorganization, translated introduction, economy of introduction